

■ 센터 소장 인사말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위한 연세의료원의 사명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보건의료센터 2대 소장을 맡게 된 박용범입니다. 전우택 전임 소장님께서 2014년 3월 연세의료원 산하에 통일보건의료센터를 개설하시고, '통일 미래 남북한 주민들의 전인적인 건강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북한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연구 활성화, 통일보건의료분야 인재 양성, 한반도 건강 공동체 조성을 위한 보건 의료사업 기획 및 리더십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센터에서는 통일수액모금, 북한영화기획전, 북한이탈주민 의료인 양성사업 지원을 해 왔고, 매년 세브란스 통일의 밤 개최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통일, 북한, 통일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해 왔습니다. 또한, 총 42회의 통일보건 의료 세미나를 통해서 북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와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북 교류를 대비한 보건의료 계열의 준비를 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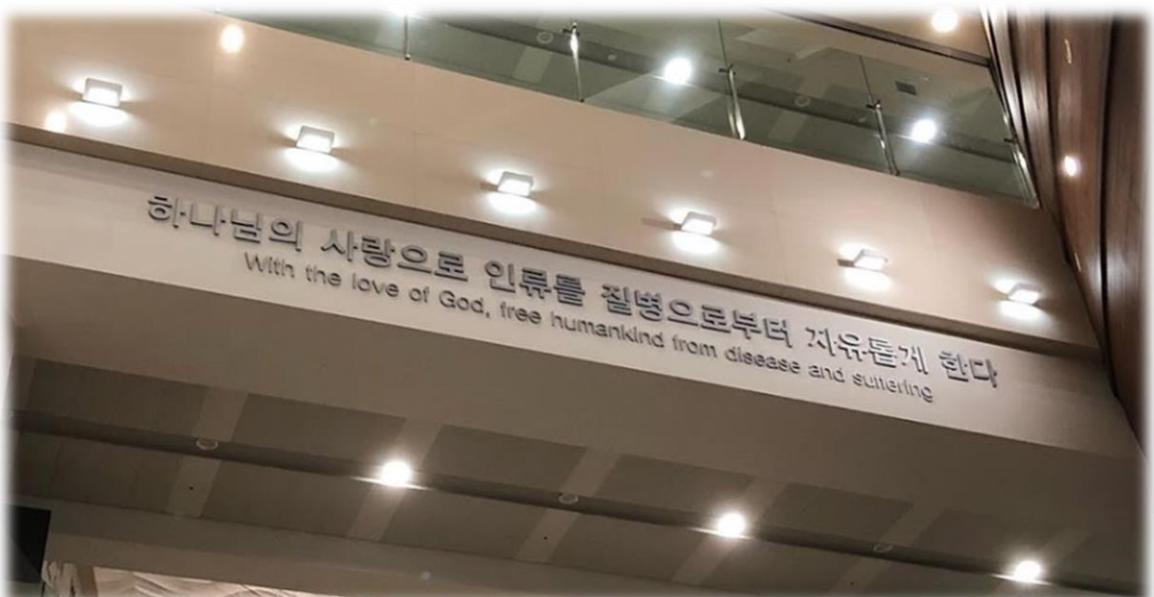
우리 통일보건의료센터는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보건 기획단 등 5개의 기획단 활동을 통해 향후 통일상황에서 연세의료원의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 연구들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과대학에서는 <통일과 의료>, 간호대학에서는 <통일과 간호> 등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였고, 원내 교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판문점 및 DMZ 안보관광>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향후 통일보건의료세미나와 기획단 활동을 더욱 내실화하고 발전시키며, 기관 내외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통일과 나눔 사업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센터 소장 인사말

연세의료원이 북한과 통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이유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았다'는 믿음과 정신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정신과 믿음은 우리기관이 1885년 이 땅에 광혜원으로 시작되어 환자를 치료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 활동을 해 온 모든 일들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관은 한반도에 건강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기관 사명 아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통일보건의료센터의 각 기획단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잘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연세의료원 교직원들과 학생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보건의료센터에서 올해 계획하는 여러 일들이 모두 잘 진행되고 좋은 결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 4. 19.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박용범 올림



전임 소장 인터뷰

[편집자 주] 2020년 3월 1일, 통일보건의료센터는 설립 이래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2014년 통일보건의료센터 설립부터 센터 소장 직위를 맡아 왔던 전우택 교수의 임기가 2019년 2월 29일부로 종료된 것. 그리고 2020년 3월 1일, 이전 의학기획단 단장이었던 내과학교실 박용범 교수가 새로이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으로 발령되었다.

이제 통일보건의료센터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에서, 전임 소장님을 모시고 센터 소장으로서 활동하였던 소회를 듣고자 한다.



6년간의 임기를 마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세브란스의 3대 정신은 기독교, 개혁, 협동입니다. 의학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의학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와 변혁을 향하여서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조선말과 대한제국 시절에는 개화 정신 및 기독교 신앙을,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정신과 그 운동을,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의학과 의료를 통한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의료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가장 큰 과제는 분단 극복과 통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년 전 연세의료원에 통일보건의료센터가 선도적으로 설립되고 그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개척하고 준비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우리 연세의료원의 그 사명을 다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그 초대 소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의료원과,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어 수고해 주셨던 모든 교직원 분들에게 깊이 감사 드립니다.

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뜻 깊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통일에 대하여 막연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셨지만, 실제로 의료원 안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던 많은 교직원 분들과 학생들이 통일보건의료센터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그 구체적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 달 시행된 통일보건의료세미나가 42회에 이르렀던 것, 의, 치, 간, 약, 보건대학원 각 각에 기획단이 구성되어 그 활동에 들어가게 된 것, 매 해 이루어진 세브란스 통일의 밤과 같은 것들이 기억에 납니다.

전임 소장 인터뷰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우리 통일보건의료 센터를 모체로 하여 통일보건의료학회가 만들어져서 이제 그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는 것도 매우 기쁘게 기억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향후 통일보건의료센터에의 당부 사항이나,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그동안의 6년이 씨를 뿌리고 싹이 나기 시작한 기간이었다면 이제 부터는 정말 통일을 위하여 연세의료원의 정신과 실력을 발휘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는 기간으로 들어선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의 관계가 계속 경색되어 있지만, 그렇기에 더욱 더 보건의료 영역을 통한 남북 관계 진전이 시도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연세의료원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가, 결정적 활동 시기가 왔을 때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을 맡으신 박용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센터 산하 의학기획단 단장을 맡아 수고해 주셨고 앞으로 센터를 훌륭히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듯이, 보건의료는 인간과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터를 만들고 지켜주는 기반입니다. 그것이 보건의료의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그동안 남한 사람들의 보건疫료를 담당하여 온 연세의료원이 남한을 넘어 북한을 향하여서도 움직일 때, 한반도에는 평화와 상생의 발전이 올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적 경험과 정신을 가진 기관"이기에, 연세의료원은 이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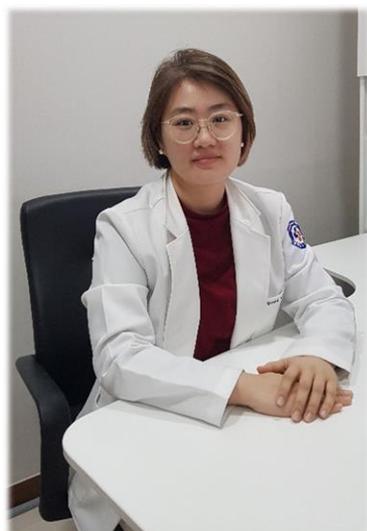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과 학생 분들이 한반도의 분단과 북한, 그리고 통일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센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임 연구 위원 - 의학기획단 이혜원 교수

[편집자 주] COVID -19의 유행이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국경을 폐쇄하고 무역을 중지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북한의 보건 및 의료 인프라가 부족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서, 다시금 북한의 국가단위 보건 전략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여러 정부기관에서 활발하게 통일 보건 활동을 진행하며, 북한 보건의료에 높은 전문성을 지닌 이혜원 교수를 통일보건의료센터 의학기획단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학기획단 연구위원 위촉에 화답한 이혜원 교수를 만나 보게 되었다.



교수님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제가 해온 일들을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본다면, 첫 번째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질병에 대한 연구 및 교류 방안 탐색, 두 번째 한국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건강 형태 및 교육 상담, 세 번째 국내 지역사회에의 일차의료 강화 및 퇴원 후 건강관리를 위한 병원 협력체계 강화 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이면서 보건학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가정의학과 수련을 마치고 미국에서 MPH 석사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석사과정에서 국가 단위의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전략 수립과정들을 공부하면서 미국에 있을 때부터 북한의 보건의료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임의와 의과대학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통일보건의료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2016년에는 신라가 가나의 코이카 모자보건사업에 참여하면서 우리 가족도 가나에서의 생활을 일정기간 경험하게 되었지요. 이후 귀국하여 2018년부터 서울의료원에서 공공의료팀 과장과 가정의학과 과장을 겸임하면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공의료 사업들을 의료원 차원에서 추진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들을 만들어 시행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가정의학과 외래 진료에서는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정착 교육, 검진상담 그리고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를 병행하였습니다.

미국에 계셨을 때, 어떤 계기로 통일 및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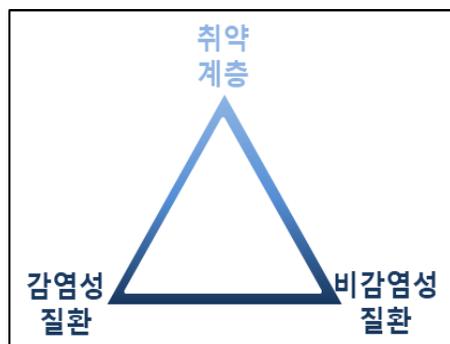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과정 중에 북한 이탈 주민 중 북한 의사 출신 분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 때부터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에 대해, 저소득 국가의 질병패턴과 보건사업 중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석사과정 중 북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듣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석사과정 최종결과물도 북한의 결핵관리를

신임 연구 위원 - 의학기획단 이해원 교수

위한 보건사업 기획안이었지요. 석사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관심의 깊이를 더 늘려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북보건으로 협력 관련하여, 굉장히 높은 전문성을 갖고 계신데, 이 협력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북한 내에 있는 보건의료적 수요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현재 triple burden, 즉 취약계층과 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 모두에 대해 질병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예요.



그와 같은 상황의 배경에는, 변질된 보건의료 시스템이 있어요. 북한은 잘 작동되는 보건의료체계가 존재하였으나,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호 담당 의사 등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시기를 거치게 되어 시스템 자체가 변질된 것이죠.

국제 사회의 자본이 충분한 감염성 질환 영역에서는 국제 지원이 많이 이루어 졌어요. 다만 이 감염성 질환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도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만성질환의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만성질환 중 심뇌혈관, 암 등에 의한 사망률이 급속히 올라하는 비감염성질환 질병부담이 증가하였죠. 그리고 사회격차 및 시스템 변질로 인한 산모나 소아의 영양 결핍 및 서비스 접근성 약화와 같은 취약계층의 높은 질병 이환 및 사망률 증가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구요.

그 동안 인도적 지원과 부분적 개발 지원이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2017년 이후 강화되면서 그나마 지원되던 개발지원도 많은 부분 중단되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과거 정상적 작동하여 무상의료를 시행했던 시기로의 회복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할 것입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북한의 보건의료 국가전략들을 살펴보면 북한 고유의 의료 체계 강화, 고려의학의 현대화, 의료장비 및 기술 현대화, 의료 질적 수준 강화, 의료정보체계 및 원거리의료 강화 등이 언급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북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 결핵, 말라리아, 모자보건과 같은 특정영역에서 북한의 질병현황과 관리현황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으나 좀 더 세밀한 질병별 북한의 현황 및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북한의 상황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전략을 세워야 해요. 여기에 더해 보건의료시스템은 사회에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경제, 정치, 간호학, 약학 등 관련된 학문들이 북한을 주제로 연구해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함께 공동연구도 진행하는 학제간 소통과 통합의 연구들을 기획하고 수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임 연구 위원 - 의학기획단 이해원 교수

앞으로 통일보건의료센터 의학기획단 연구위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시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연세의료원 내 각 과별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북한의 문제에 대한 대안 현황 연구, 실현 가능한 보건사업기획 연구 등을 추진하고 싶어요. 또한 북한에 직접 들어가 상황분석을 시행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해외 전문가들입니다. 국제기구와 함께 북한에 직접 들어가 자료를 수집하고 지원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국내 전문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연구 플랫폼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북한의 의료 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현재와 같은 경색국면에서는 제3국으로 의료 인력을 초청하여 학술교류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텐데, 이러한 현실적인 접촉부터 시작하여 국내 전문가와 북한전문가도 직접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통일보건의료센터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센터에 가장 기대하는 바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에요. 학제간 연구를 위한 플랫폼 및 전문 영역에서의 북한 연구를 위한 정보 공유 플랫폼. 또한 이를 통해, 정부 정책 자문을 할 때 관련 전문가를 준비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를 위해서는 연구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젊은 연구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업데이트된 정보가 계속 젊은 연구자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역할(아카데미, 세미나 등)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전문지원자 역량강화 및 소진 대응 프로그램(H2) - H2 사업 평가 및 발전방향 심포지엄

돕는 사람들을 돕는(Help for the Helper) 프로그램의 돌아봄과 내다보기

2020년 1월 17일(금), 의과대학 의대 회의실에서는 탈북민 지원자의 역량 강화 및 소진(Burn-out) 대응 프로그램의 사업평가 및 발전방향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로써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후원을 받아 통일보건의료센터가 6개월여 간 진행했던 돕는 사람을 돕는 프로그램(Help for the Helper), 일명 H2 프로그램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 자리에는 역량강화 및 소진대응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20명의 참가자 외에도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장, 탈북민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민간지원자, 탈북민 인권 보호 단체장, 탈북민의 석·박사 논문 작성법을 교육하며 다음 세대의 인재 양성을 준비하는 기관장이 함께 했다.

과연 이 곳에서는 어떠한 돌아봄과 내다보기가 있었을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H2 프로그램 돌아보기 : 격려의 시간

H2 프로그램 돌아보기는 그 동안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의 사진 및 인터뷰가 정리된 오프닝(Opening) 영상을 상영함으로 시작되었다.

이 영상에는 H2 프로그램의 목적,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을 참여를 통한 개인들의 변화 내용이 담겨있었고, 한반도평화를 위한 전문지원자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총괄하였던 전우택 세종원보건개발원 원장의 개회사가 이어졌고, 교육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영역, 대인관계 영역, 직무 영역을 프로그램 전후로 비교한 설문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이 발표에서 이영준 교수(의학교육학교실)는 남북한 출신 전문지원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스트레스 영역, 대인관계 영역, 직무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현황을 설명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필요성을 다시금 수치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전문지원자 역량강화 및 소진 대응 프로그램(H2) - H2 사업 평가 및 발전방향 심포지엄



마지막으로 수료식에서는, 전문지원자들의 교육 참가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수료증과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H2 프로그램 내다보기 : 돕는 사람(Helper)에게의 유익성을 넘어서

뜻깊은 격려의 시간 이후, H2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서 교육 참가자들과 자문위원들의 종합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의 필요성, 프로그램의 발전방향,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H2 프로그램의 수평전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2019년 H2 사업은 큰 효과를 보여 왔으나 이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들에서 직원들을 위한 자체적 사업을 시행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향후 프로그램 기획 시 각 기관의 직원 뿐 아니라 기관장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프로그램 구성 이후 참가자들이 기관에 돌아가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모델링하는 것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앞으로도 통일보건의료센터의 H2 프로그램은 더욱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더 효과적인 역량강화 및 소진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1차적으로는 탈북민 정착을 돕는 전문지원자들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2차적으로 H2 프로그램 참가자들 간에 경험 공유와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연구활동 소개

연구과제명	바이오마커 기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측정도구 개발 및 사회적 회복 요소 발굴
책임자	추상희 간호대학 교수
발주기관	한국연구재단
기간	2019. 6. 1. ~ 2024. 5.31 (5년)
연구과제명	수리 모델을 활용한 북한 결핵 및 말라리아 발생 예측 기초 연구
책임자	강영애 의과대학 교수
발주기관	한국연구재단
기간	2019. 6. 28. ~ 2020. 6.27 (1년)

기타·광고

2020 통일보건의료학회 춘계 학술대회



일시	2020. 6.26, 13:00 ~ 18:00
주제	전염성 질환에 대한 남북공동대응 방안
장소	향후 포스터 통해 공지 예정
참가신청	



통일보건의료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TEL 02-2228-0997 ✉ E-mail uni-health@yuhs.ac

🏠 http://www.yuhs.or.kr/mssn_realize/CHUK/intro/

📘 Facebook | www.facebook.com/ys.unihealth